

CC의 법칙

연출 김혜르
각본 임지인

1. 술집 / 밤

한 대학가 술집거리. 시끄러운 소음과 화려한 네온사인 가운데,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청춘들의 모습이 보인다. 그러나 그들과 상반되는 모습으로 길 한복판에 서서 정신없이 다뿔을 벌이고 있는 두 남녀, 나정(23/여)과 현석(23/남).

나정

야, 제발 그만 좀 해.
내가 계속 아니라고 해명하잖아.
꼭 이렇게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여자친구 망신 줘야 직성이 풀리니, 넌?

현석

(언성 높이며) 사람들이 보는 게 뭐!
수십 명 앞에서 다른 남자랑 키스신 찍는 건 프로의식이고
남자친구랑 싸우는 건 쪽팔리냐?

나정

(주변 의식하며) 조용히 좀 말해.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

현석

야 나정아, 좀 솔직해져봐.
넌 그냥 나랑 만나는 게 쪽팔린거야.
맞아, 아니야!?

나정

너 그거 자격지심이야.
쪽팔리냐는 소리 이젠 지겹다, 진짜.

현석

(욕하며) 뭐? 지겨워? 내가 지겨워?

나정

그래, 지겨워! 지겨워 죽겠어!

현석

(빈정대며) 이야, 지겹고 쪽팔린 남자랑
어떻게 3년이나 만났냐?
이럴 거면 질질 끌지 말고 헤어져, 그냥!

나정

우리가 어떻게 헤어져!!
교수님까지 다 아는 3년 만난 CC인데!!

씩씩대며 외친 나정의 말에 할 말을 잃은 듯 황당한 얼굴의 현석. 마주보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 위로 흘러나오는 익살스러운 음악과 함께 올라오는 타이틀, <CC의 법칙>.

2. 골목 / 낮

민아(V.O)

그래서, 헤어졌어?

담배 연기가 자욱한 골목. 그곳에서 뻑뻑 담배를 피우고 있는 나정과 그를 심각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는 조연출 민아(22/여). 쫓쫓, 혀를 차며 나정을 토닥여주기 시작한다. 그 때 골목 안으로 우르르 몰려 들어오는 남자 스태프 무리. 그 틈에서 다소 수척해진 얼굴의 현석이 눈에 들어온다. 그런 현석을 남몰래 힐끔거리며 훑쳐보는 나정. 현석을 둘러싼 남자 무리 사이에서 ‘여친’, ‘이별’과 같은 단어들이 들려오기 시작한다. 민아와 대화를 나누면서도 은근히 무리를 향해 귀를 기울이는 나정. 그러나 그 순간 몸을 일으키는 민아.

민아

(휴대폰 확인하며) 언니, 5분 지났다.
저희 이제 스탠바이 할게요!

남은 스태프들을 향해 외치고는 걸음을 옮기는 민아. 나정, 애써 현석에게서 시선을 거둔 채 골목을 빠져나간다. 한편 담배를 피우던 현석, 떠나는 나정의 모습을 흘끗 바라본다.

3. 공원 / 낮

한창 촬영준비가 진행 중인 현장. 남자 상대역과 리허설을 해보는 나정의 모습을 빤히 바라보는 현석.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나정의 모습에 심기가 불편한 듯 눈썹을 꿈틀거리기 시작한다. 잠시 후, 스탠바이에 들어가는 현장. 잔뜩 피곤한 얼굴의 감독 정훈(28/남)이 헤드셋을 쓰며 모니터 앞에 앉는다.

정훈

자, 가볼게요. 레디, 액션!

큐 사인과 함께 시작되는 촬영. 나정은 상대역과 함께 공원 분수대에서 물장난을 하며 해맑게 웃으며 장난을 치고 있다. 그러한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던 현석, 쓰고 있던 헤드셋을 벗으며 감독을 향해 손짓을 한다.

정훈

컷! 어, 왜. 사운드 문제 있어?

현석

웃음소리 피크가 너무 치는데요.
못써요, 이거.

정훈

어, 그래? 그럼 바로 다시 가봅시다.
자, 레디!

홀딱 물을 맞은 상태로 다시 스탠바이에 들어가는 나정. 현석, 그런 나정을 바라보며 이제 부터가 시작이라는 듯 비열하게 웃어 보인다. 잠시 후 다시 물장난을 시작하는 나정. 아까 보다 작게 웃음소리를 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헤드셋을 벗어 던지는 현석.

정훈

또?

현석

(절레절레) 못써요, 못써.

정훈

(나지막이) 난 괜찮던데….

결국 다시 시작되는 촬영.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나 현석이 태클을 걸자 촬영은 계속된다. 이제는 거의 물미역이 되어버린 나정. 결국 조연출 민아가 이를 제지하기 시작한다.

민아

감독님, 저희 시간 없어요.
빨리 다음 컷 가야돼요.

정훈

야, 임마. 후시로 해, 그냥!

현석

그럼 그러죠, 뭐.

기다렸다는 듯 태연하게 대답하는 현석. 모든 스태프들의 따가운 시선이 닿지만 현석은 개의치 않는다. 잔뜩 물에 젖은 상태로 오돌오돌 떨고 있는 나정.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입꼬리를 씨익 올려 보이는 현석. 그 모습을 발견한 나정, 입술을 꾀악 깨운다.

4. 공원 / 낮

쉬는 시간. 각자 무리끼리 모여 식사를 하고 있는 스태프들. 나정 또한 민아와 함께 김밥을 먹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젖은 꼴로 덜덜 떨고 있는 나정. 멀리서 그 모습을 발견한 현석, 내심 신경이 쓰이는지 몸을 일으켜 나정을 향해 천천히 다가간다. 그리고는 자신이 입고 있던 후드집업을 벗어 앉아있는 나정에게 툭, 던지고는 떠나는 현석. 하지만 그 순간 실수로 후드집업에 머리를 맞고 마는 나정, 결국 폭발한 듯 후드를 주워들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현석

(외마디 비명) 아!!

반면 이 사태를 알지 못한 채 자신의 행동에 뿌듯해하며 걷고 있던 현석. 순간 뒤에서 있는 함꼰 후드집업을 집어던진 나정에게 머리를 제대로 맞고 만다. 순식간에 싸해지는 분위기. 모든 스태프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로 향하지만 나정은 자리에 앉아 다시 묵묵히 김밥을 먹기 시작한다. 육한 현석이 나정을 향해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그 순간. 공원 안으로 들어오는 한 사람, 바로 담당교수(50/남)이다. 음료를 손에 한 가득 싸들고 응원을 온 교수에 일제히 몸을 일으키며 인사하는 스태프들. 덩달아 현석 또한 걸음을 멈춘다.

교수

어, 그래. 촬영 잘하고 있고?

그래그래, 밥은 먹고 해야지. 앉아들.

학생들 하나하나 인사를 건네며 다가오는 교수. 이내 나정과 현석 앞에 다다른다. 동 떨어져 있는 두 사람과 묘한 분위기에 짓궂은 농담을 건네기 시작하는 교수.

교수

뭐냐, 니들. 맨날 붙어 다니던 놈들이
웬일로 떨어져있어. 싸웠냐?

나정

...

현석

...

교수

어라, 진짜 싸웠어?

현석

...아뇨, 헤어졌는데요.

순간적으로 내뱉어버린 현석의 말에 다시 한 번 싸해지는 분위기. 교수, 당혹스러운 얼굴로 차마 말을 잇지 못하는데. 그 순간 앉아있던 나정이 벌떡 몸을 일으키며 자리를 빠져나간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현석마저 머리를 긁적이다 나정을 따라 나가자 행하니 홀로 남겨진 교수. 그 때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감독 정훈, 교수에게 다가와 나지막이 중얼거린다.

정훈

저, 교수님. 잠깐 저 좀 봐시죠…?

5. 공원 / 오후

터벅터벅, 빠른 걸음으로 촬영장을 빠져 나오는 나정. 그리고 느릿한 걸음으로 그 뒤를 쫓아오는 현석. 나정, 치솟는 화를 억누르며 걸음을 멈춘다.

나정

(돌아보며) 왜 따라 나와?

나정의 말에 똑, 걸음을 멈추는 현석.

나정

니 말대로 우리 헤어졌어.
근데 왜 따라 나오고 지랄이야.
여기서 니가 날 따라 나오면
사람들이 우릴 뭐라고 생각하겠냐고!

현석

…이 와중에도 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게 걱정이야? 진짜 징하다, 너도 참….

마주보며 서로를 힐뜯기 시작하는 두 사람. 나정,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폭발한다.

나정

야, 내가 헤어지자고 했니?
니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잖아.
근데 왜 이제 와서 니가 차인 척이야.

현석

내가 언제 차인 척 했어.

나정

딱 봐도 사연 있는 척,

나한테 쌓인 거 있는 척.
그렇게 굴고 있잖아, 지금!

현석

내가 헤어지자고 한 거 확실해?
먼저 헤어지길 바란 건 너 아니야?
말 안 해도 니 표정, 눈빛으로 다 느껴지는데
나보고 뭘 어떡하라는 거야!

나정

...

현석

잘 생각해봐.
넌 나랑 안 헤어진 게 아니라, 못 헤어진 거야.
그놈의 사람들 시선 때문에.

한 마디를 남기고는 돌아서는 현석. 나정, 차오르는 숨을 들썩이며 멀어지는 현석의 뒷모습을 바라보고만 있다.

6. 공원 / 오후

잠시 후, 감정을 추스른 후 촬영장으로 돌아오는 나정. 그러나 이미 촬영을 철수하고 있는 스태프들의 모습이 보인다.

나정

뭐야, 촬영 끝났어?

민아

아, 응. 이따 비 온대서 오늘 철수래.
언니 퇴근해도 돼. 고생했어.

나정

응, 너도. 나 택시 가고 가면 되지?

민아

아, 그, 언니, 우리 교통비가 부족해서...
진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현석오빠 차타고 갈래...?
나랑 다른 애들도 다 같이 타고 갈 거야.

나정

뭐?

황당한 얼굴로 두 눈을 깜빡이는 나정. 저 멀리 차를 몰고 오는 현석의 모습이 보인다.

7. 차 안 / 오후

현석의 차 안. 뒷좌석에 앉아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있는 나정. 창문에는 빗물이 똑똑 떨어지고 있다. 이미 굵아떨어진 스타프들 가운데 홀로 깨어나 운전을 하고 있는 현석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나정. 이제는 그의 옆자리에는 자신이 아닌 다른 여자가 앉아 있는 것을 한참을 바라보다 말없이 눈을 감는다.

8. 학교 복도 / 저녁

며칠 후, 촬영이 끝난 후 후시녹음을 위해 녹음실로 향하는 복도를 걷고 있는 나정. 녹음실 앞에 도착한 후 문을 열려는 순간, 휴대폰 문자 알림음이 울린다. 휴대폰을 열자 보이는 감독에게서 온 문자. <나정아 진짜 미안하다 ㅠㅠ 화장실이 급해서 좀 늦을 것 같은데 먼저 들어가 있어> 문자를 발견하자 아이 씨, 짜증스레 머리를 헹글이는 나정. 그러나 이내 머리를 정돈하며 심호흡을 한 뒤 녹음실 문을 연다. 그리고 그 안에 앉아있던 현석, 마찬가지로 방금 문자를 확인한 듯 당혹스러운 얼굴이다. 잠깐의 정적 후 먼저 입을 여는 현석.

현석

...앉아.

9. 녹음실 / 저녁

녹음실 안에 들어가 헤드셋을 끼는 나정. 녹음실 밖에서 모니터를 통해 그 모습을 지켜보던 현석. 마이크 스위치를 누른 후 진행할 대사 순서를 알려주기 시작한다.

현석

응, 거기 마이크 보이지?

거기에 입 대고 맨 처음 대사부터 시작하면 돼.

나정

뭐라고? 잘 안 들려.

더 크게 말 해봐.

현석

헤드셋 제대로 안 껴어?

한참을 버벅거리다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결국 자리에서 일어서는 현석. 녹음실 안으로 직접 들어가 제대로 연결 후 나정에게 헤드셋을 씌워준다.

현석

이제 들려?

나정

…응, 잘 들려.

그제야 편안한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 다시 녹음실 밖으로 나와 본격적으로 녹음을 시작한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수월하게 작업을 마친 두 사람. 나정, 마지막 대사를 받은 후 녹음실을 빠져 나온다.

현석

수고했어.

나정

응, 너도.

간단한 작별인사를 마친 후 짐을 챙겨 떠나려는 나정. 문고리를 잡는 순간, 잠시 망설이다 무언가 할 말이 있다는 듯 뒤돌아선다. 무슨 일이냐는 듯 바라보는 현석.

나정

우리… 이제 진짜 헤어지는 거지?

현석

(말없이 끄덕이는)

나정

그래, 잘 지내고.

마지막 말을 남긴 채 다시 돌아서는 나정. 그 때, 뒤에서 들려오는 말에 살짝 미소 짓는다.

현석

얼굴 보면, 인사하고 지내자.

10. 학교 복도 / 저녁

녹음실 문을 닫고 복도로 천천히 걸어 나오는 나정. 그 때 시끄러운 소음소리와 함께 촬영을 진행 중인 후배들의 모습이 보인다. 나정을 발견하자 일제히 인사를 하는 후배들. 그런 후배들을 지나치려는 순간, 나정의 눈에 들어오는 한 남녀 한 쌍. 지친 촬영장 속에서 서로의 어깨에 기대고 있는 커플의 모습이 보인다.

후배1

야야, 촬영장에서 연애질 좀 그만 해라.

두 사람의 모습에 질색하는 주변 사람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나정, 과거의 자신의 모습이 스쳐 지나가는 듯하다. 동시에 과거 현석과의 대화를 떠올리는 나정.

나정(V.O)

있잖아, CC의 장점은 계속 볼 수 있는거래.
근데 단점은 계속 봐야 하는거래.
그래도 넌 CC 한 거 후회 안 해?

현석(V.O)

(망설임 없이) 후회해.

나정(V.O)

뭐? 왜?

현석(V.O)

그냥... CC가 아니라 다르게 만났으면
우리 좀 덜 싸웠을 거 같아서. 너는?

과거를 떠올리며 후배 커플의 모습을 지켜보던 나정. 이제야 현석의 말에 대답이라도 하듯 나지막이 중얼거린다.

나정

...난 후회 안 해.

- FIN -